

# 3분기 도내 제조업체 체감경기 더 악화

물가·원자재값 상승, 환율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지역 제조업체들은 3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 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익산·군산·전북사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5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2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78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반대의다.

도내 기업들의 향후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기준치 100을 넘어 유일하게 3분기 호전을 예상한 반면 영업이익(72)을 비롯한 공급망 안정성(79), 매출액(84), 자금조달(86), 공장가동여건(94)은 기준치를 밑돌며 3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107), 전기전자(100) 업종은 3분기 경기회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비금속광물(43)을 비롯해 섬유(52), 종이(57) 관련 제품제조업의 경우는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금속광물 업종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3분기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9.6%가 '환율과 물가 변동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내수시장 침체(31.3%),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12.5%), 금리인상에 따른 신용불안(6.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상섭 전북상협 회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지수가 78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감이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위축시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와 수출입 전망에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원자재가격과 물가 안정,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해소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두·살구 교잡해 만든 '플럼코트 심포니' 수확

수서인 7일 원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한 연구원이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플럼코트 심포니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보급을 시작한 플럼코트는 2012년 20ha에서 지난해 약 200ha로 10년새 재배면적이 10배 가량 확대됐다.

수서인 7일 원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한 연구원이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플럼코트 심포니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보급을 시작한 플럼코트는 2012년 20ha에서 지난해 약 200ha로 10년새 재배면적이 10배 가량 확대됐다.

## 산단 에너지 자립·체질 개선 첫 걸음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신규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모델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12월 열린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 착공사에서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 비전을 선포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지지를 최초 지정하게 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는 건물 옥상, 선도시업, 추가 조성 등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통합플랫폼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해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운영중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새만금 시범산단 지정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입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진청, 파테말라 KOPIA 센터 설치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파테말라 농축산식품부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하 코피아) 센터 설치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파테말라 농축산식품부 호세 알헬 로페즈 갈포세코 장관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테말라 정부로부터 코피아 센터 설치를 요청받고, 농촌진흥청과 파테말라 농축산식품부 양측이 1년여의 실무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파테말라 코피아 센터가 설치되면 전 세계 코피아 센터 설치 나라는 23개로 늘어날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FAC)를 통해 파테말라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파테말라에 설치되는 코피아 센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부채관리 서비스

금리인하 지원 확대·실시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발맞춰 '부채관리 서비스'를 통한 금리인하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따뜻한 금융클린러 전주센터를 통해 올해 시행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 대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41.9% 이상한 수준에서 금리인하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는 센터 개점 이래 최대 지원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4.7%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다가 서한국 은행장 취임 이후 지난해 10.9%로 증가했고 올해 15.0%까지 더욱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받아

산림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7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임업직불금은 2022년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인 대상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1일부터 30일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퇴비(화학비료) 감소,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점검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12월 지급한다.

남원=김기우 기자

## 완주산단 상수도공기업 경영 행안부 장관표창

김성호 용수팀장, 용수공급·상수도 행정서비스 등 성과 인정

김성호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용수팀장이 공기업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7일 김성호 팀장이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지방공기업의날 기념식 및 지방공기업 CEO 포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은 국내 지방공공기관의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자체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 공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각종 성과를 종합 심사해 선정된다. 완주산업단지는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전례 효율 상승 등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부문의 우수사례고 및 우수사고 긴급복구 서비스, 사회적기부 부문의 재난안전관리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상수도 113개 중 8개소에만 부여된 최우수등급(가등급)을 받는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수질측정장치 및 약품주입설비 개선으로 인한 수질관리 및 인공적 용수공급, 고객민족을 위한 상수도 행정서비스 등의 성과도 인정받았다.

김성호 팀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관내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4일간 전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예담채 복숭아 통합관촉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예담채 복숭아, 전국서 특별판매

1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4일간 전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예담채 복숭아 통합관촉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복숭아는 여름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알칼리성 식품이며, 달콤한 향이 좋은 복숭아는 수분과 비타민,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피부건강과 다이어트에 좋고 체내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 및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더불어 전국 복숭아 첫 출하시즌인 전라북도(본부장 정재호)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4일간 전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예담채 복숭아 통합관촉행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닭고기 수급안정 방안 논의

농식품부, 수급조절협의회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가 참석한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양계,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푸드(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5명,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대표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정책 건의하는 자문기구로서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축산법 개정(지

난해 3월 25일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닭고기의 여름철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까지 도축마릿수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비용 등 원가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7월, 8월, 9월 도축마릿수는 평년 대비 각각 3.1%,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림, 동우푸드(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연간 생산량의 50% 수준 차지)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는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향후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료비 상승이 축산물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3,550억 원 → 1,530억 원) 및 금리 인하(1.8% → 1.0)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도 인하(2.5~3.0% → 2.0~2.5)해 업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 및 추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농장지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